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왼쪽 세번째)을 선두로 선수행 대법회에 참가한 200여 스님들이 수덕사 일주문부터 천장암까지 포행하며 경허 선사의 '길 없는 길'의 발자취를 되짚고 있다.

“참자성 터지면
우주법계 다 찰 것
그것이 바로
경허 선사의 가르침”

“경허 선사 되짚음은
송산 스님 뿌리 찾아
선사의 법맥 살펴
한국불교 중흥 이루자”

송산의 뿌리 찾아 '길 없는 길'을 걷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국제선수행대법회 거행... 200여 국내외 불자 모여

Q: "하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심해야 하나?"
- 혜월 스님
A: "누가 하심하냐. 하심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 국제선원 무상사 대봉 스님

Q: "참선 중 자꾸 졸음이 옵니다. 어떻게 하나?"
- 봉은사 청정심 보살
A: "아이가 아프면 잠이 오겠습니까. 동기가 확실해야 합니다. 왜 수행하는지 먼저 생각하고 앉으세요."
- 대봉 스님

Q: "깨달음 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님이 장님 이끈다는 격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비로자나 국제선원 자유 스님
A: "다른 이 보다 더 알고 있다는 거만함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이 꼬달릴 것이 아니라 닦친 일을 할 뿐입니다. 임제선사는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했습니다."
- 대봉 스님

Q: "삶에서 살아있는 공안을 만날 때 마다 지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 운문사 강원 썬치 스님
A: "질문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산 스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민 될 때 차라리 동전을 던져라'"
- 대봉 스님

6월 7일 경허선사 열반 100주기 기념사업회(회장 지운, 수덕사 주지)가 덕숭산 수덕사에서 개최한 국제선수행대법회 '길 없는 길(The Pathless Path)'의 한 장면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국내에서 수행정진 중인 외국인 남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제선원 무상사 대봉 스님을 중심으로 즉문즉설로 각자의 수행을 진단했다.

한국선불교의 중흥종 경허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한 이날 국제선수행대법회에서는 경허 스님의 법을 이은 송산 스님의 뜻을 좇아 그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유럽 관음선원 우봉 스님,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대진 스님, 헝가리 국제 원광사 정안 스님 등 외국인 스님들은 송산 스님으로부터 받은

법의 뿌리인 경허 스님의 가르침을 알고 또 따르기를 서원했다.

이에 앞서 행사의 첫 시작인 입재법회에서는 경허 선사 법손인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법문을 통해 이들을 격려했다.

"여러분의 참자성이 확 터지는 순간 그 마음이 우주법계에 꼭 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허 선사의 가르침입니다."

설정 스님은 "경허 선사가 천장산 산하에서 오도송을 읊으신 것이나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든 것이나, 달마대사가 직지인심을 외친 것이나 오묘지한 곳, 바로 각자의 참성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라며 참나찾기를 위해 용맹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송산 스님 제자를 대표해 대봉 스님은 입재법회에서 경허 선사의 가르침을 되짚는 일은 송산 스님의 가르침의 뿌리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해외 많은 송산 스님의 제자들은 경허 스님이 없었다면 한국불교 수행을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경허 스님의 법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살펴서 선불교를 중흥 했듯

한국불교 중흥에 기여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행사는 입재법회에 이어 대중들의 자기소개와 대봉 스님의 법문, 즉문즉설로 이어졌다. 이날 선수행대법회에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재가자들도 함께 했다.

향산 이재명 거사(60)는 "나를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잊어버릴 것 같다"며 "이 자리에 모인 스님들처럼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첫날 국내에서 떨어져 수행하다 오랜만에 동향도 반을 만난 외국인 스님들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삼사오우 모여 대화를 이어갔다. 둘째날인 8일에는 새벽 3시 30분 예불 후 좌선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수덕사에서 경허 선사가 깨달음을 점진한 보인처 천장암까지 포행했으며 개심사·서산마애불을 순례했다.

경허 스님이 걷던 길은 스님의 방편법처럼 때론 포장길도, 때론 흙길도 다양했다. 포행 뒤에는 세시간에 걸친 유럽 관음선원 우봉 스님,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대진 스님의 법문과 즉문즉설이 진행됐다. 셋째날에는 정혜사와 금선대 참배가 진행됐으며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회향법문 속에 행사가 마무리 됐다.

예산 수덕사=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경허 스님 가르침을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6월 7일 진행된 대봉 스님의 즉문즉설하는 모습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

염불(念佛), 염승(念誦) 모음

■ 염승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계,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백대참회문, 대불정능엄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왕선주경, 보왕삼매론

■ 염승의법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넷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